

전북, 도시 곳곳 녹색 숲길 만든다

올해 도시숲 30ha 조성 폐철도 등 유휴공간 활용 기후위기대응·삶의 질 높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도내 30.44ha 규모의 도시숲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조성 대상지는 △전주시 탄소국가산단, 익산 전라선 폐철도 등 8개소에 기후대응 도시숲 10.5ha △군산 폐철도 구간에 도시바람길숲 5.7ha △남원 월락초 등 4개소에 자연안심 그린숲 0.28ha △부안자연생태공원 등 16개소에 지자제 도시숲 13.96ha 등이다.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 확대를 넘어, 도시 생태계 회복 핵심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헥타르 도시숲은 연간 미세먼지 약 168kg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6.9톤을 정화하며, 여름철 평균기온을 3~7℃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우 시 빗물 유출도 완화시켜 도시형 홍수 예방에도 기여한다. 정서적 효과도 주목된다. 도시숲을 찾는 시민들은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도심 속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에 지역별 기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숲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노후 도시숲에 대한 리모델링과 체계적 관리도 병행해, 도시숲이 세대를 잇는 지속가능한 녹색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시숲은 도시를 건강하게 숨 쉬게 하는 생명선이자, 시민의 일상을 품격 있게 변화시키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더 많은 녹색 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 도시바람길 숲.

<사진=전북자치도>



탐스러운 복숭아 수확하는 농심

남원시 시설복숭아가 전국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바쁜 손길로 수확하고 있다. <사진=남원시>

남원 하우스 복숭아 첫 출하

남원시 시설복숭아가 전국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바쁜 손길로 수확하고 있다. 송동면에서 출하된 시설복숭아는 지난 1월 초순부터 가운을 시작해 노지보다 빠른 2월에 꽃이 만개하며 3월 하순

에 적과 후 5월 초에 수확한다. 노지와 비교해 약 40일 정도 빨리 수확기를 앞당겨 생산하게 됐다. 남원에는 30여 농가가 10ha에 이르는 면적에 재배하고 있으며 노지재배에 비해 3~4배 이상의 높은 조수익을 올리고

있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복숭아 시설재배는 노지재배와 달리 후면이 완료되는 1월부터 숙련된 재배관리 기술과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반면 강우·늦서리 등을 차단할 수 있어 병해충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숙기를 촉진시켜 조기에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해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 전주서 개막 정원산업 육성·시민 힐링 도모

162개 정원 소재 업체 참가 13일까지 시상식 등 진행

162개 정원산업체와 전문 정원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가 전북자치도 전주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전주월드컵광장 내 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성윤 국회의원, 임상섭 산림청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부의장, 정원작가, 참여업체 대표, 조목정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은 △주제 영상 상영 △기념사 △환영사 △축사 △전문·시민작가정원 공모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현장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성일 총괄코디네이터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문 및

시민정원작가에 대한 시상도 마련됐다. 영예의 전문 작가 수상팀은 △대상 푸르디(김재영·김승규·박지원, 작품명 '배심대') △최우수상 천이(전소형·김규성, 작품명 '심유림')가 수상했다. 또한 시민작가 수상팀은 △대상 식물집사(김성민·이진혁, 작품명 '시선') △최우수상 초록어게인(홍윤남·강태현·박영순, 작품명 '아울 정원') △우수상 그린오브제(양진용·권영아, 작품명 '담장 너머로')이다. 정원작가들이 조성한 정원은 박람회 기간 정원해설사와 함께 정원투어도 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는 정원을 가꾸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과 연계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인 △나는야 꼬마정원사, 정원사 인생컷, 정원가꾸기 도구 사용법 △천연 퇴비는 어떻게? △별과 나비가 모이는 정원 조성 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대재간 화로 앞에서 금속을 달고구 두드려 전통 호미를 만드는 시연 △플랜터에 정원 식물을 식재

하고 디자인을 설명하는 해피 가드닝 △'꿈결같은 세상' 등 전주의 아름다운 개인 정원을 촬영한 사진전 △정원에 진심인 사람들의 이야기 토크쇼 등도 펼쳐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는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국내 굴지의 식물전문가와 정원가, 조경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원 근황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림이다. 이와 함께 올해 박람회에서는 판다·홍학 조형물과 곰돌이·하마·코끼리·토끼 토피어리, 꽃트리 포토존, 꽃담 등 박람회를 추억할 특별한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주시는 관람객의 효율적 동선 확보와 편의를 위해 개방감 있는 부스를 배치하고, 대형 파빌리온과 삼림치유존 등 다양한 쉼터를 마련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한편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세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전북대, 국내 최초 '첨단방위산업학과' 신설

교육부로부터 20명 정원 승인 첨단기술기반 방산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방위산업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부터 국내 최초로 '첨단방위산업학과'를 신설 운영한다. 교육부는 최근 전북대가 제출한 첨단방위산업학과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내년부터 20명 정원의 첨단방위산업학과 학부생을 모집한다. 방위산업학과는 그동안 국내 몇몇 대학들이 석·박사 과정 등을 운영하긴 했지만, 학부과정에서 신설은 전북대가 처음이다. 이번 학과 신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패권 경쟁 심

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로 급증하는 국내외 국방 예산과 이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K-방산은 높은 가성비와 빠른 납기능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합정 MRO 요청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수년 내 반도체와 자동차 등 13개 국가 주력 산업 진입이 유력한 분야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신설은 첨단 국방기술 개발과 수출 증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방산 전문인력 양성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는 그간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중장기 계획으로 새만금 지역을 K-방위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과 인재 양성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식 학과 신설을 통해 전북대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맞춘 신기술 기반의 첨단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첨단기술과 산업 정책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국내 최고의 K-방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와 첨단방산융합 대학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방산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방위산업 융합형 교육과 연구 발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김문수 “강제단일화 절대 응할 수 없다”

의총참석 최후통첩

권영세 “대단히 실망스럽다” 후보 단일화파국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9일 “강제 단일화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해 달라”고 친윤 지도부를 직격했다.

이어 “단일화는 우리 자유진영에 단일 대오를 구성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친윤 지도부의 지지율 저

조 문제’에 대해서 “저 김문수를 믿어 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으나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면서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의 이같은 입장 발표 후에 “내용이 대단히 실

망스럽다”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애둘러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 뒤에 회의장을 벗어났고, 김 후보도 이같은 상황에서 회의장을 벗어났다.

김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추가적인 단일화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 기자

이정린 도의원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률안 신속 처리” 촉구

“국민 생명 정치 뒤편으로 국회 법안 신속 처리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의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이날 채택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정린 도의원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 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

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조차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역 공공의료원은 더욱 심각하다”며 “비수도권 의대생이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은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홍준표 “유통과 두 놈은 천벌 받을 것”

국힘 지도부 강력 비판 “보수 진영 또 한번 케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9일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이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 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구나”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내 이럴 줄 알고 더러운 발에서 빠져 나오긴 했지만 한국 보수진영은 또 한번 케겔 되는구나”라면서 통탄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와 관련 “김문수 주장이 맞다”며 김 후보를 응원하면서 “유통과 두 놈은 천벌 받을 거다”라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이 지적한 ‘두 놈’은 실명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입당을 직접 권유했다.

권 위원장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빚던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패싱’하고 기습 입당할 때 입당원서를 받은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50여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면서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겠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 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홍 전 시장은 “이건 비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이다”며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놈들도 똑 같다”고 친윤에 이어 이들을 따르는 원내·외 위원장들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오양섭 후보자 임명

도의회 인사청문회 지적 수용 자동차산업 현안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제10대 자동차융합기술원장에 오양섭 원장 후보자가 지난 5월 9일자로 임명됐다.

전북자치도는 오양섭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25.3.27~28)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했다.

오양섭 후보자는 35년간 현대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업체에서 근무하며, 상용차 연구개발, 상용차 수출, 부품 회사 경영 등 자동차산업 전반 풍부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발전과 지역 자동차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과 협



력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그는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인이 가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상용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차 핵심부품 엔지니어 육성, 완성차 및 중견·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지적사항을 존중하며, 후보자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박학승 의원 ‘대전·남원·여수 KTX 국회 토론회’

국회제52간담회의실서전략발표

박학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계원의원(여수시을)은 지난 8일 국회 제52간담회의실에서 ‘대전·남원·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역 간 극심한 교통망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남원·여수를 잇는 신규 고속철도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부 내륙철도 노선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은 ‘남부 내륙 신규 고속철도 구축 전략’을 발표하며 신규 노선의 경제·사회적 효과와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돼 국토 균형 발전과 철도 인프라의 공정한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통망 구축에 앞장서 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김재연 사퇴 철회 강력 촉구”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9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광장대선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선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당은 진보당 중앙당 대표단의 김재연 후보 사퇴, 본선 미등록 결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대선 완주를 촉구하는 당직자들의 연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탄핵광장 시민들의 열망을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 및 김재연 후보 사퇴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전북,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만든다

교육·취업 전 과정 지원 8,500명 고용 창출 목표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도는 올해 '직업교육, 취업연계, 고용 유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경력단절여성 8,50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존 여성 중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의미하며, 도내 해당 인원은 약 2만 5천 명으로 매년 약 2천 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위해 도는 13개 세부사업에 총 11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다.

기존 3개 과정(바이오식품산업 품질 관리자 등)이었던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인공지능 콘텐츠 디자인 전문가 과정을 포함해 6개로 확대한다.

또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에게는 최대 40만 원(1회 10만 원, 최대 4회)을 지원하는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했다.

여성인턴제도도 강화된다. 새일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고용유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이 기존 1인당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 중 기업에는 400만 원, 인턴에게는 60만 원이 지급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6월과 8월 여성 대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취업연계기관 워크숍을 열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사진=여성가족부>

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장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취업, 고용유지까지 전 단계에 걸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농촌진흥청>

농진청, 축산과학원 '전북 이전 10년' 기념식

축산기술 연구 성과 공유 조직 소통·화합 도모의 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지난 9일 완주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별관 대강당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전 직원 및 퇴직 선배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날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10년간 이룬 축산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더불어 지역 상생발전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1부에서는 원장 개회사 및 퇴직 선배의 답례사(축진회 대표)를 시작으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한국농축협협의회장 등 농업계 주요 인사

들이 영상 축하 메시지로 이전 10주년을 축하했다.

또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10년의 여정 영상 상영과 '국립축산과학원 10년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기관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아울러 개원 73주년 기념 포상 수여 등을 비롯해 연례 행사로 케이(K)-축산 기술 사진 공모전 수상자 전시, 무인기(드론)로 단체 사진 촬영하기 등을 진행하며 축하를 더했다.

2부 시간을 통해 축산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동물의 낯을 기리는 '축헌제'가 엄숙하게 치러졌다.

이와 함께 '우리 원 역사를 말한 다' 퀴즈, 단체 게임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화합 한마당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중소형 위탁운용사 선정 추진

2개사 총 5천억 위탁배정 중소형사 기회·다변화 목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서원주)는 국내 부동산 중소형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경쟁력 있는 중소형 운용사 통한 투자 기회 확보와

기금의 국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기금운용본부는 위탁운용사 2개사에 총 5,000억 원 상당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 관련 제안서 등을 접수 받은 후 내부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일정 및 최종 선정 운용사 수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중소형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 여러 해의 기관투자자들의 사례를 참고하며 기금 포트폴리오 및 국내 여건에 맞도록 선정을 준비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번 선정 절차를 통해 기금 대체투

자 수익률 제고 및 위탁운용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체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내 부동산 중소형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알림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든든한 버팀목'

도·근로복지공단-전북경진원 사회안전사각지대 해소 맞춘

전북자치도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마련으로 도내 1인자영업 사회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도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900명 수준이며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수는 500명으로 낮은 보험 가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재보험 가입 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근로복지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0@jbb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公, 라오스 댐에 '한국형 안전모델' 구축

농식품부와 기후 위기 대응 '라오스 댐 안전 구축' 착공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날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국 대사과 잔타론 부알라판 라오스 농림부 차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홍익기술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40년간 3~5등급의 강력한 태풍이 증가했으며,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도 빈번해졌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9월에는 슈퍼태풍 '야기'가 라

오스를 강타했다. 15개 주에서 이재민 18만 5천 명이 발생하고, 2만 5천 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 같은 피해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오스는 댐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전담 조직, 전문 인력, 기지재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밀안전진단이나 댐 모니터링,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가 미흡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농업용 저수지 운영과 안전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라오스에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도 수립, 기반 시설 확보, 인적 역량 강화로 나뉘어 추진한다. 제도 수립 지원을 위해 댐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진=농어촌공사>

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지침' 등을 참고해 라오스 상황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댐 안전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모니터링과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사이나볼리주 남티엔 댐' 등 시범 지구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교육을 병행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계적인 기술 지원을 넘어, 라오스 정부가 스스로 댐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지역 유망 창업기업 역량 강화

BI육성 선정기업 Kick-off 진행 멘토링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2025 특화역량 BI육성 선정 기업 역량강화 Kick-off'를 개최했다.

Kick-off은 '2025 도전! J-스타트업 창업컨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전북지역 유망 창업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일~9일 양일간 부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진행했다.

이번 Kick-off에서는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 우수기업 4개사 상장 수여(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바이오진흥원장상), 참여기업 대표자 역량강화 특강 및 기업으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도전과 혁신의 리더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스타트업 CEO리더십

특강'을 통해 창업가로서의 기업가정신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참여기업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다양한 산업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기업들이 상호 동·이종 사업 간 교류를 통해 상생 정보 교류 및 튼튼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본 사업은 올해 2년 차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 지원, 바이오진흥원 주관, 전북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에코파이버가 참여했다.

더불어 도내 농생명·바이오 및 주력 산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세분화·고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기업 어려움에 정책당국 지원 절실"

(주)알에프세미와 간담회 판로지원·애로 해소 모색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완주 소재 반도체 및 조명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알에프세미(대표이사 반재용)와 지난 9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화된 내수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당국 지원방안이 필요

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판로지원 방안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주)알에프세미는 전북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또 (주)알에프세미는 1999년 설립해 'ECM 소자, TVS 소자, LED구동소자 등 반도체 소자와 ECM 모듈, LED 구동장치 모듈, LED 조명'을 생산하는 기술 선도형 기업이다.

/김영태 기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전북지역 소형 신협 방문

7개소 찾아 현장소통경연 일선 현장 의견 청취 중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9일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 전북지역 소형신협 7곳을 방문하며 현장소통경연에 나섰다.

김윤식 중앙회장 소행조합 순회방문은 지난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이며, 순회방문일정은 8일과 9일에 걸쳐 이뤄졌다.

순회 일정은 각 조합 재무현황 및 애

로사항 점검을 실시하며 이후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중앙회장은 전북지역조합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며 신협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청취했다.

이날 신협중앙회에서는 윤성근 기획이사, 우육현 관리이사, 강형민 기획조정본부장, 장익수 디지털 경영지원본부장,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이 농·소형조합 순회일정을 함께했다.

/김영태 기자

/최성민



미래를 지키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 1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 2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사용하기
- 3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하기
- 4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 5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 6 친환경 상품,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 7 종이 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8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 9 컴퓨터 절전기능 이용하기
- 10 종이청구서 대신 전자영수증 받기 

군산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공공근로사업 8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5명으로 총 14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은파호수공원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1960년 7월 2일~2007년 7월 1일 출생)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군산 시민이면 가능하다. 단, 신청자 중에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한다.

선발자들은 7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5개월간 1일 5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10,030원 이외에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오는 16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는 현재까지 1만 1900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직 접수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다. 작물 재배업자의 경우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양봉농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토종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의 경우 연 60만 원이며, 2인 이상인 경영체부터는 각 구성원별로 1인당 30만원씩 차등 지원된다(3인 경영체는 90만원).

시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거쳐 오는 8월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뒤, 9월 중 추석 명절 전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신흥저수지 둘레길 최대 오후 8시까지 개방 연장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신흥저수지 둘레길 개방 시간을 연장한다.

시는 하절기 신흥저수지 둘레길의 개방 시간을 최대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운영시간은 동절기(9~4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하절기(5~8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으나,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하절기에는 일몰시간 내 최대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개방된다.

시는 개방 시간 연장으로 퇴근 후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시민 삶의 질과 여가 활동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파격 지원책

공장 신축 보조금 상향 근로자 가족 이주 지원 등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공장 건립 시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기존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였던 보

조금 지원율을 6%로 1%p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역 내 공사 물량 확보와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지역 기업의 정읍 이전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공장 이전 시 4인 이상 가족 세대가 함께 정읍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산업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에서 1%p를 추가 상향해, 1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의 6%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에서 레드바이오 산업까지 아우르는 집적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산업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호남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활용해 물류 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물류 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조업 투자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 기업이 정읍에 거점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역 산업 육성·경제 활성화 방안이 침체된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읍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라이즈(RISE)’ 사업 업무협약

동반 성장 지역·대학 맞손

익산시가 ‘라이즈(RISE)’ 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과 고등교육 혁신에 나선다.

시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라이즈(RISE)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4개 대학이 함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백준을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이준화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백보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이 참석했다.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RISE)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대

학과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혁신 △동행협력 지역발전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왔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3월 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익산시는 대학과 함께 △농생명·바이오 인재 양성 △헬스케어 디지털전환(DX) △시니어 웰니스 직업교육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13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총력’

사전절차 마무리 단계

군산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올해 안에 지정받기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및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법률 시행 이후에는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집적화단지’로 우선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아 주도권을 확보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단지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약 1GW급 발전 용량이 목표이며 사업구역은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역(약 180

㎢)이다.

현재 군산시는 ‘해양 입지’ 컨설팅 등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풍황 측측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한국전력과의 협의 △주민 설명회·사업자 포럼 개최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조성 단계에서 지역의 경제·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에는 시장·부시장 및 관계 국·과장을 대상으로 ‘군산시 해상풍력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해상풍력과 연계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앞으로 해상풍력 TF팀을 조직해 통합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 창업자 육성 현실로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천국’으로의 힘찬 비상을 알렸다.

시는 9일 ‘2025년 익산형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2025년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20명의 청년 창업가는 유관기관과 투자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으며 집중 교육과 멘토링,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창업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부터 기술 고도화를 통한 틈스(TIPS) 프로그램 연계, 투자유치 기회까지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담고 있다.

익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창업 사업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2023년 이후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17개 기업이 정부 창업사업과 연계, 지난해에는 3개 기업이 총 5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군산시가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군산시민에게 총 설치비의 최대 95%까지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부터 관내 전 지역의 주택과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을 진행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0일까지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고향올래’ 선정...청년이 찾는 도시 도약

10억투입 청년창업공간마련

익산시가 청년들의 발걸음이 머물며 창업의 꿈을 펼치는 도시로 본격 도약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고향올래 사업’ 로컬벤처 분야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의 자원, 특색을 활용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과 정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익산시는 국비 포함 10억 원을 투입해 ‘타임브릿지(TIMEBRIDGE), 익산 솜솜’을 추진한다.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익산에 정착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근대 건축문화 자산과 역사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구도심 인화

동을 거점으로 숙소, 창업·협업 공간, 지역사회 교류 공간 등을 조성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솜리공방에 공유주방·사무실·회의실 등을 마련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창업 거점(테스트 베드)로 탈바꿈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청년과 지역 청년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창업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정부 기반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과거의 유산과 미래 청년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해, 긍정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로컬벤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고향올래 사업은 단순한 청년창업 공간을 넘어, 지역의



익산청년시청

<사진=익산시>

가능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중분위 결정 일방적 위법적 판단”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판단에 반발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반면, 생활 기반은 이미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수변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각종 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변도시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라는 점도 비판했다.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시민들은 공유수면 상실로 인해 막대한 어업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처럼 중대한 요소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분위가 경계 설정의 근거로

삼은 하천 종점 변경 계획 역시 실현되지 않은 문서상 계획일 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실제 없는 계획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은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과 행정적 불합리를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 회복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 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경계 다툼을 넘어,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민 생활권 보호 문제까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사료구매 정책자금 247억 투입

6월 12일까지 대출 실행

정읍시가 계속되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24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달 사료구매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 금액, 기존 대출금액 여부, 각종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했다. 이후 용자 추천이 어려운 일부 농가를 제외한 총 214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247억원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다.

이번 사료구매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은 용자 100%에 연 1.8%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 추천 통보서’와 상세내역을 발급받은 후,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는 기간 내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용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사료구매 정책자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2차 배정이 예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농가들이 안정적이고 소득 있는 축산농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참고을 논공산업 투자협약

‘콩애플’ 논공산업 거점 지구 내 80여억원 투자
콩 식품 생산라인 구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8일 논공 생산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참고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참고을은 참기름과 장류 등을 생산하는 김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콩애플” 김제 논공산업 거점지구’ 내에 8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콩 식품관련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식량생산의 보고(寶庫)이며 정부의 전략작물 육성정책에 부응해 논공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지난 2024년 기준 김제시 논 콩 재배면적이 5,981ha로 전국 논 콩 재배면적의 약 26%(전국 1위)를 차지하며 식량 자급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논 콩 생산에 따라 다양한 유통체계 및 가치시스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8일 논공 생산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참고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제시>

을 구축해 안정적인 판로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논공 생산과 연계한 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거점화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콩애플” 김제 논공산업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지구에 신청을 추진

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논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제에 투자를 결정한 ㈜참고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제 콩 산업과 기업이 상생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군민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 공포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
심리상담 등 회복 지원 사업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25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지진과 올해 초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사고, 위도 어선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부안군민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빠른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맞춤형 심리상담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상담 지원 △정신건강 약화 예방을 위한 유관기



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재

난 뿐 아니라 일상 속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호평’

자연순환 정착·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 효과

고창군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관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중이다. 5월 현재까지 66ha(94농가) 규모의 파쇄 작업을 진행했다.

파쇄지원단은 파쇄인력 6명과 파쇄기 2대로 구성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산립 인접 지역(100m 이내), 고령자·여성 농업인·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논·밭두렁에서 고춧대·깻대·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신청한 농가에 나가 파쇄기를 사용해 무료로 분쇄해 주는 사업이다.

자연순환 문화를 정착하고 불철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미세먼지 발생도 낮춘다. 특히 파쇄 작업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경병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군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 총 23대의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공동 파쇄작업의 경우 무료로 임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행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부산물 처리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순환과 깨끗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시정현안 주간 전략회의’ 주요 현안 진가 발휘

100여건 주요 안건 다뤄
시민체감형 성과 창출 기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민선8기 전 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시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김제시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 그리고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난제사업 해결 등 시정전 분야에 걸쳐 알찬 결실들을 맺으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원팀(One-Team) 전략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 김제시만의 특별한 노하우, ‘시정현안 주간 전략회의’가 있다.

시정현안 주간 전략회의는 김희옥 부시장을 주재로 국·소·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주요 난제·현안사업에 대해 쟁점사항을 파악해 대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오랜 공직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능력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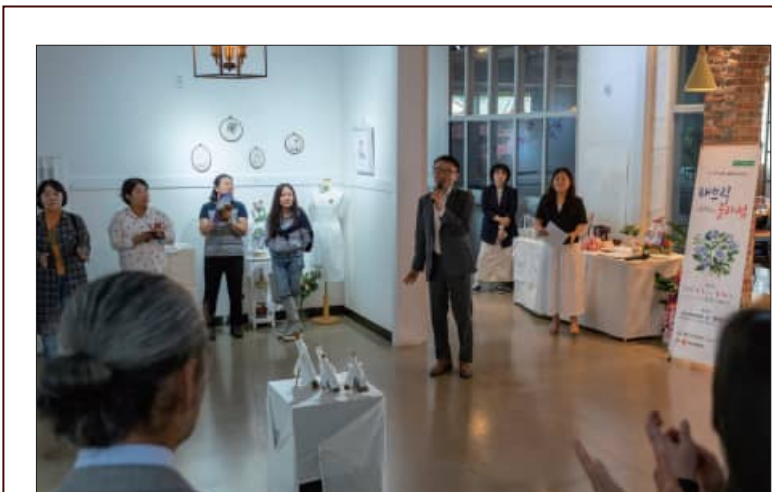
특히 민선8기 김제 시정운영 주요현안 결정에 든든한 자문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시정의 추진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시정현안 주간 전략회의에서 지

평선 새마루, 김제온천, 황산군사시설 등 장기표류 난제사업들과 구)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 모색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그리고 시민불편사항 및 부진사업 대책 마련 등 크고 작은 100여건의 주요 안건을 다뤘으며, 그 결과시정 조정 기능과 현안 대응력이 한층 강화돼 시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소통과 협업 등 시정의 전략적 컨트롤타워 기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정현안 주간 전략회의를 적극 활용해 시정 운영에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문화도시센터 ‘패브릭블라썸’ 전시

담마갤러리서 16일까지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선운교육문화회관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선운 치유문화 프로젝트 ‘담마갤러리 초대작가 전시 ‘치유미술展’의 첫 번째 전시를 오는 16일까지 담마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이번 1회차 전시는 초대작가 임애진의 ‘패브릭 블라썸’으로, 천 위에 자수로 새겨진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낸 작품들로 꾸러졌으며 부제는 ‘천 위에 피어난 작은 용기와 치유의 기록’이다.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는

‘치유미술展’은 주민들의 정서적 회복과 예술적 감수성 증진을 위해 기획된 연중 프로그램으로, 회차별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가를 초청할 계획이다.

6월 중에는 칠보와 민화를 주제로 약 3회차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문식 센터장은 “‘치유미술展’을 통해 주민들이 예술을 쉽게 접하고 그 시간을 통해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만 지정 현안 논의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제2차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확정된 새만금신항 항만 지정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새만금항 신항’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

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됐으며,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김제시의회회는 이번 결정이 지역항만 정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열었으며, 위원들은 해양항만과로부터 관련 경과를 보고받은 뒤 새만금항 신항 조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책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고창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

고한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동도움창구 방문 시 반드시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안내문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자치행정국, 천사무료급식소 봉사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 자치행정국장 등 13명의 공무원들이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 정리 등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식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이용했다.

이번 봉사는 자치행정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순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직원은 “업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장 운영을 직접 경험하는

게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사무료급식소는 매주 3회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설렁탕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식사를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 부안군에 총 1천만원 기탁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이 제12회 부안마실축제 환경 리셉션에서 고향 부안군에 총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오 회장은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500만과 근농민재유성장학금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부터 3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역시 매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오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와 인제 장학 지원이 부안의 미래를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매년 잊지 않고 고향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오명석 회장님의 깊은 애정과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부안군의 인제육성과 군민 복지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회장이 대표로 있는 ㈜염에스옴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유통·제조 전문기업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모범적 항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청년 정착, 어르신 돌봄, 환경 정비 등 군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고액 기부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날들이 철 맞이 자판기 위생관리 지도·점검

고창군은 봄 날들이 철을 맞아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점검은 편의점 내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있는 4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반이 영업신고의 적법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자판기 내부 위생 상태, 정수기 및 살균등 작동 여부, 자판기 관리자 표시등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한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평선봉사대 어버이날 맞이孝 듬뿍 음식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평선봉사대(회장 유선희)가 지난 8일 김제사회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이 듬뿍 담긴 효(孝)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제시 지평선봉사대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제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저소득 어르신 100여명에게 준비한 점심을 대접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당일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과 밀판찬을 나누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지평선봉사대 회원은 김치 담그기와 반찬 조리를 위해 행사 전날인 7일부터 김제사회복지관에 모여 불고기, 장조림, 회무침 등 다양한 반찬들을 준비했다. 유선희 회장은 “지평선봉사대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음식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로컬유학, 국비 지원 ‘날개’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 선정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완주형 농촌유학 모델 추진

완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고향올래 공모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5개 사업 유형 중 ‘로컬유학’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로컬유학은 도시 거주 학생들이 농촌 지역의 학교에 일정기간(6개월 이상) 동안 전학해 생활하며, 자연 속 삶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의 교육·문화·공동체를 함께 체험하는 교육 모델이다. 단순한 전학이나 체험을 넘어서 지역 사회와의 통합적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점이 특징이다. 군은 현재 운주농촌유학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생이 생활하는

농촌유학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 완주군은 지방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해 로컬유학을 위한 주거공간 추가 조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 프로그램 개발, 지역과의 상생 모델 정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완주형 농촌유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유학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는 9일 김용식 제17대 회장의 이임식과 새롭게 취임하는 최일천 제18대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최일천 대한노인회 순창지회장 취임

17·18대 지회장 이·취임식 김용식 17대 회장에 감사패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는 지난 9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창군지회를 이끈 김용식 제17대 회장의 이임식과 새롭게 취임하는 최일천 제18대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각 읍·면 분회장 등 노인회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김용식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하는 최일천 회

장에게 힘찬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4년 동안 순창군지회를 이끌어 온 김용식 제17대 회장은 노인회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체 회비 폐지 등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순창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최일천 제18대 회장의 새로운 임기 시작을 축하했다. 최일천 신임 회장은 순창군의원, 순창군 노인대학장, 유등면 분회장으로서 어르신들을 위해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군지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누리시민과 함께한 춘향제, 뜨거운 호응

축제중 누리시민 6천여명 가입 실질적 혜택 제공 생활 인구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7일간 제95회 춘향제가 성황리에 마무리한 가운데 남원누리시민제도도 큰 호응을 얻으며, 생활 인구가 자연스럽게 지역에 어우러져 축제에 함께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제95회 춘향제 기간 누리시민 가입자는 총 6,447명에 달했으며, 이 중 달빛정원 피오리움 입장객 2,327명이 누리시민으로 등록해 50%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춘향무도회 한복 체험에는 140명이 50%할인 혜택을 받았다. 또한, 농·특산물 시식권 이용객도 216명에 이르는 등 누리시민과 연계한 행사 도입 첫 해 입도에 불구하고 방문객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를 ‘누리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남원과 인연을 맺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원 누리시민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 기간 중 누리시민 홍보부스를 운영해 총 6,447명의 누리시민 가입 성과를 올렸다. <사진=남원시>

제도’를 전면에 내세워, 축제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달빛정원과 춘향무도회 등 주요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방문객들은 누리시민 제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현장에서는 누리시민 가입을 위한 대기 줄이 형성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으며, “남원시민이 아님에도 시민처럼

환영받고, 진짜 남원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여행이 아니라, 남원과 인연을 맺는 경험이었다”는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누리시민과 함께하는 춘향제”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남원과 외지인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하천 살리기’

동자개 치어 8만 마리 방류 어족자원 증대·생태계 조성

순창군이 지난 8일 지역 내 주요 하천의 수산자원을 증식하고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갔다.

군은 복합면 추령천 일원과 유등면 섬진강 일원에서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자개 치어 8만여 마리를 하천에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동자개 치어는 전장 4cm 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모두 어류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 치어들이다.

실제로, 군은 매년 동자개, 쏘가리, 붕어, 메기 등 다양한 토종 어종을 관내 주요 하천에 방류하며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방류 사업 역시



순창군은 지역 내 주요 하천의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균형 회복을 위해 지난 8일 추령천 유등면 섬진강 일원에 동자개 치어 8만여마리를 방류했다. <사진=순창군>

하천 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방류 현장을 함께 지켜본 한 마을 주민은 “행정에서 꾸준히 방류 사업을 추진해 줘 매우 고맙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지역의 어족 자원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도 건강

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뻐한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순창군의 어족자원 증대와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유희태 군수, 재해복구 현장점검 “신속 마무리”

화산면 일원 현장 방문 점검 우기 대비 내달까지 복구 당부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8일 완주군 화산면 일원의 재해복구 사업장을 방문해 여름철 우기 대비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해 지난해 대규모 수해를 입은 성북천, 석학천, 고산천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정동소하천에 대해 이뤄졌다.

유 군수는 이날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난해 피해 발생 구간, 하부 세굴, 수충부 등 우기철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유 군수는 “재해복구사업은 무엇보다 신속한 정비가 최우선으로 6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여름철 재난 발생에 대비해 항상 예의주시하며 비상대응체계 마련,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사업비 1,128억 원을 투입해 총 217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132건은 이미 완료해 전체 복구율은 60% 이상이 다.

/완주=김명곤기자

김의식 작가 남원 전국 옷칠 목공예 대상

‘삼단 광한루 진열장’ 출품 27일부터 전주한옥마을 전시

지난 2일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는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시상식이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임종명 전 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종국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대회장, 이정도 남원목공예협회장 등 주요 내빈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상자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올해는 총 108점의 작품이 접수돼 37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대상작(국무총리상)은 김의식 작가의 ‘삼단 광한루 진열장’으로



전통 나전기법을 활용해 전통성과 지역성을 잘 표현한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작 2점은 옷칠 목공예 분야 장왕기 작가의 ‘흐르는 물결’, 같이 분야 이상훈 작가의 ‘오월’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은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전주공예품 전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경천면민의 날 성료 ‘주민 화합’

제36회 완주군 경천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9일 경천생활체육공원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체육행사, 민민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경천면 체육회(회장 윤석암)가 주관해 마을별 정백전 체육경기 대항전이 이뤄졌다. 3부에는 축하 공연과 함께 각 마을에 숨은 예능인들의 끼를 발산하는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5월부터 청소년 진로체험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공(교육동)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MMCA Edu-Run 미술관 사람들)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콘텐츠 배포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개발한 교구재를 활용해 미술관의 다양한 직업군을 알아보는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 <MMCA Edu-Run 미술관 사람들>은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컨서베이터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는 보존 전문가의 직무를 체험하는 컨서베이터 과정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가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총 15명 내외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완주소방서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완주소방서와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개입, 생명존중 의식 확산, 소방서 실무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완주군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의뢰-치료연계 체계 구축 ▲완주군의 자살예방과 생명사랑 문화 조성 ▲소방 실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강남인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완주군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완주군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검사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주)뉴텍 유영우·김명호 대표이사 순창군에 300만원 고향사랑기부

순창군은 지난 9일 (주)뉴텍의 유영우·김명호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유영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2007년에 설립된 (주)뉴텍은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현대자동차(주)의 1차 협력업체이며 완주군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다.

특히, 유영우·김명호 대표는 평소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유영우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순창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기부금은 순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현대옷칠목공예관, 문체부 설립타당성 통과

27년개관목표 전통현대융합 전국 유일 옷칠 기반 문화시설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 현대 옷칠 목공예관’ 건립 사업이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남원 현대 옷칠 목공예관’은 남원시에서 조성 중인 합파우 아트밸리 내에 조성되는 연면적 2,759㎡ 규모의 전시 공간, 수장공간, 교육공간 등을 갖춘 문화시설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의 옷칠 목공예 문화는 천혜의 대자연 지리산을 기반으로 이어온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원은 오늘날까지 한국 옷칠 목공예의 전통성이 계승되고 지역문화로 이어진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1997년부터 남원에서 개최해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성과 높은 훈격(국무총리상)을 갖춘 옷칠 목공예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모전의 성과를 통해 남원을 중

심으로 한국 현대 옷칠 목공예 문화의 예술성과 변화를 조명하고 현대적인 예술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심사에서 합파우 아트밸리를 연계한 사업 계획의 우수성과 도시재생사업 분야도 함께 병행하는 남원시의 체계적인 운영 방향을 특히 높게 평가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현대 옷칠 목공예관’은 옷칠 목공예를 한국을 대표하는 K-공예 문화로 성장시킬 것이며,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허준영 (유)대주건설 대표, 부안군에 500만 원 기부

남원시 소재 (유)대주건설 허준영 대표가 지난 8일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고액기부를 실천했다.

허 대표는 부안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순수한 취지에 깊이 공감해 흔쾌히 동참했다.

허준영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제도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북익산농협, 대학생 30명에게 장학금 총 3천만 원 전달

북익산농협(조합장 김득추)은 9일 본점 2층 대강당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3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득추 조합장은 “지역민들이 바라는 훌륭한 인재가 육성되고 우리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북익산농협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210명에게 약 7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시그니아 독일보청기 익산점, 어르신에게 희망의 소리 전달

익산시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덕)과 시그니아 독일보청기 익산점(원장 정희형)이 보청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보청기는 300만 원 상당으로, 뇌경색 이후 청각 기능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전달됐다.

정희형 원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청기를 준비했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효성첨단소재(주),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 동참

기부금 1,000만원 후원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끄는 효성첨단소재(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전주시와 효성첨단소재(주)는 9일 전주시시장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최송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효성첨단소재(주)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전

주 함께장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주시

에 전달했다. 효성첨단소재(주)의 기부금은 전주 함께장터의 취지에 맞춰 팔복동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을 위

해 사용될 예정이다. 효성첨단소재(주) 관계자는 “이번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돼 기업과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나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해설사, 춘향제 때 특별한 해설

“보람과 광한루의 애정 생겨”

(사)삼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이 제95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청소년광한루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춘향제를 대표하는 공간인 광한루원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설명하며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구성됐다. 제95회 춘향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

달하고자, 청소년들이 해설사로 나서 축제의 감동을 한층 더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해설사 안모 학생은 “처음에는 떨리고 부담도 컸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광한루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제가 아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뿌듯했다. 광한루를 그냥 ‘예쁜 곳’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역사 공간으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양지와 함께하는 데이’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인 양지노인복지관(관장 최상욱)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복지관 이용자 600여 명과 ‘양지와 함께하는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여가와 건강,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노인은 “복지

관에서 마련해준 소중한 자리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다”면서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상욱 양지노인복지관 관장은 “앞으로도 전주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정읍샘골농협, 산불피해농업인돕기 성금기탁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은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총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허수종 조합장은 지난 2일, 직접 경북지역 피해 현장을 찾아 새의성농협과 동안동농협을 각각 방문하고, 각 농협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허수종 조합장은 성금 전달과

함께 피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의 뜻도 함께 전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속하게 모금되었다.

샘골농협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농업인들과의 연대의 마음을 담아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일천 삼호정밀 회장, 완주군에 500만 원 전달

김일천 삼호정밀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주군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8일 완주군청을 찾은 김 회장은 유희태 완주군수를 만나 장애인 체육진흥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해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김일천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체육 복지향상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민성 (유)제이에스건설 대표, 무주군에 장학금 2백만 원 기탁

(유)제이에스건설 장민성 대표가 지난 9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장민성 대표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든든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꿈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보탬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정읍 입암면 달푸니 딸기농장, 가정의 달 맞아 ‘달콤한 딸기’ 나눔

정읍시 입암면 소재 달푸니 딸기농장(대표 전효영)은 지난 8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심심한 딸기(1kg) 60박스를 입암면사무소에 쾌척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달푸니 딸기농장 전효영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 싶었다”며 “주민들에게 작지만 달콤한 즐거움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잠깐만요! 버리기전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내집, 내점포앞에
배출**

**배출 시간
20시~다음날5시**

**검은봉투 배출 금지
투명봉투에 배출**

**용기안의 내용물
깨끗이비우기**

**부착상품 제거후
타 재질 분리배출**

〈一事一言〉



성장률 마이너스 최악 위기, 한국 경제 대수술 기회로(2)

홍홍학
전 국회의원

고속 성장과 규제 완화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거품을 불러왔고,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의 주식시장 붕괴로 대공황이 시작됐다. 농민 보호 명분으로 관세를 인상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로 관세 인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됐다. 10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반대 성명을 냈을 정도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후버 대통령은 마지못해 법안에 서명했다.

곧 유럽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섰고, 세계 교역량이 3분의 2까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무역이 위축되어 전 세계 경제는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대공황은 전무후무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금본위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적 관세로 대응한 스웨덴, 대영제국 내 관세 인하로 무역 감소를 막은 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반면, 1차 세계대전 배상금 문제로 경제가 파탄난 독일은 이중고를 겪으며 나치가 부상했고, 군비 확장으로 경제난을 타개하려다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

대공황의 교훈은 경제학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깊이 남아, 1920년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본 따 친기업·규제완화·감세를 내세웠던 레이건 정부조차 관세 인상에는 신중했다. 미국은 강달러 정책과 서비스·자본수지 흑자로 무역적자를 상쇄하며,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강달러 정책이 선호됐다.

이런 미국의 전통과 상이하게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내걸고, 고율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려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극도로 분절화됐다. 예컨대 애플의 휴대폰은 중국에서 조립하지만, 부품은 세계 각지에서 공급된다. 관세는 이런 효율적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것이며 기업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장기적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제조업 부흥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생산기반이 상당 부분 해외로 이전되어 제조업 공장이 없는 공동화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처음부터 제조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 없는 기업 투자가 쉽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핵심인 기능인력이 부족하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기능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서비스업의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제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는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역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트럼프 정부

의 관세 정책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냉전 이후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해온 미국이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 우방국까지 적대시하는 정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협상의 기술’로 포장하지만, 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당장 걸로 드러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으로의 여행객이 급감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수준에서 통합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정부의 신뢰 하락과 함께, 각국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우려한다. 무역 분쟁의 승자는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별적 대응국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무역 자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있을 때마다 투자자들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세계 무역이 급감하면,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대표적 국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 전망했고, 주요 투자은행들도 1% 미만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는 가계·기업·부동산 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기간 부동산 산업에 의존해온 탓에 산업 경쟁력도 약화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내수 침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 등은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계엄과 탄핵 사태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전례 없는 충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뿌리는 단지 정치적 사건에만 있지 않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지난 수십 년간 부채주도, 부동산주도 성장에 기대며 점차 약화돼 왔다.

이제는 과거의 성장 방식에 더 이상 기대서는 안 된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부채와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혁신과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대수술에 나설 마지막 기회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정부가 마련 중인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6.3 대선을 거쳐 탄생할 새 정부야말로 수도권 일극 체제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 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의 오랜 열망인 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은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서울은 자본시장 중심지로, 부산은 해양금융의 거점으로 기능해 왔지만, 실제로 국제금융 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기준으로 서울은 10위, 부산은 24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자본시장 선진화나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도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바로 전북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이미 자산관리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그 금융운용본부가 전주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북은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운용 자산 규모만 해도 글로벌 상위권이다. 여기에 향후 한국투자공사(KIC) 등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들이 추가로 이전해 온다면 전북은 세계 어느 금융도시 못지않은 자산관리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또한 전북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

우 자본시장의 국제화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금융타운 조성,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그리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등 전방위적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돼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이 간과해온 디지털화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북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더없이 적합한 선택지다.

무엇보다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고급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서비스 산업 확장, 청년인재 유입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북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서울·부산보다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와 금융산업의 미래 비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이제는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가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 들어선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한다.

문화재열전



문효공과 정경부인 영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유물, 일반회화, 초상화
- 지정일-1977년 12월 31일
- 시대-조선시대
- 소재지-무주군 무풍면

북리길 40 (현내리)

▲오늘의시

영산홍 / 송기원

내가 너를 더듬고
네가 나를 더듬어
온 산에 무더기들
이룬다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이 아니라
찰나간에
스러진들 어따랴.

스러져,
바다 모를 허공으로
불게 사라진들
어따랴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나 땅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2024년 7월 쯤, 향년 73세.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수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9-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2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고창군, 슬기로운 '지방소멸기금' 활용사업

정주를 품은 도시, 꿈을 품은 고창

전북 고창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세대 정착기반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청년 정주·농업·문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끌어 올리고 있다. 고창군의 슬기로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주거로 시작하는 정주 전략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층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거 불안정이다. 고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초기 투자 단계부터 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정주 기반 마련에 집중해왔다.

대표 사례인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쇠퇴한 터미널을 청년문화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약 2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의 생활과 미래가 공존하는 주거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신활력산단 내 청년 근로자 전용주택도 조성될 예정이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종사자,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은 물론 기업의 투자와 입주를 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의 미래는 청년에 있다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고창군은 청년농 유치와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청년이 귀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송면 일대 약 1만5000평의 부지에 스마트형·연동형·단동형 3종의 온실과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2개 팀의 청년농에게 1인당 500평씩 임대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재배기술 교육, 유통네트워킹 지원까지 더해져, 단순한 체험 중심의 농업이 아닌 실질적인 창업 기반과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된다.

머무를 이유를 만들다
문화와 창업이 만나는
정주 공간-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창
꽃정원 프로젝트

고창군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일차리와 주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환경 구축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기금을 통해 추진 중인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공연, 전시, 창작 활동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어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고창 꽃정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76억 투입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 조성
청년창업농 스마트팜단지 조성
도시 속 녹지 꽃정원 프로젝트



심덕섭 고창군수

지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봄 벨리공과 가을버스킹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고창꽃정원 프로젝트'도 지역의 문화정주 여건을 높이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 미래경쟁력을 단번에 보

여주는 바로미터(지표)가 바로 도시 속 녹지공간, 정원이다.

고창 꽃정원은 기존 폐농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던 곳을 매입해 주민 삶 가까이에서 즐기는 정원공간으로 기획됐다.

수종의 개화 시기와 기간, 순서 등을 고려한 식재 설계를 통해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난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꽃정원 단지 프로젝트'를 단순히 관광객이 보고 즐기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교육·체험·주민참여형 정원 모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 창업농과의 연계를 통해 6차 산업 기반의 체험 카페, 치유 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창업 기반 마련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고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청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농업과 문화, 관광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지역 안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방소멸은 막아내기 위해선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 사람을 결합해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기반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으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 내겠다. 많은 이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